

철거된 야구장 부지 일대 문화행사 '가득'

전주시, 얼티밋뮤직페스티벌·가막축제·평생학습한마당 등 개최

전주시가 철거공사 후 자치 방치될 수 있는 야구장과 그 일대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올해 활용된 문화행사 공간은 단계적으로 전주시립미술관 및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등 문화시설로 채워져 'MICE 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뒷받침한다.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은 1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올해 하반기 전주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부지에서 열릴 문화행사들을 발표했다. 가장 개최될 문화행사는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3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로 시작된다.

JUMF에서는 K-POP과 ROCK, 어쿠

스틱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이하 JUMF)을 찾는 관객들에게 색다르고 특별한 무대를 선물한다.

일자별로는 공연 첫날인 11일에는 K-POP으로 젊은세대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12일에는 ROCK 공연을 통해 매니아층을 겨냥하고,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어쿠스틱 공연을 통해 모든 세대가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주의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주가막축제'가 역대 최대규모로 시민을 찾는다.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지역뿐 아니라 관광

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주가막축제는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하이트진로가 후원하고, 전주가막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다.

오는 9월에도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이 전주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부지에서 마련된다. 평생학습한마당에서는 130여개의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해 다양한 홍보 부스 및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이어서 10월에는 올해 처음 축제 시즌제로 개최되는 '전주페스타 2023'의 오프닝 축제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 축제에서는 전주의 맛과 멋, 열정

을 담은 전주만의 콘텐츠들로 가득 채워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는 올해 4월 철거 완료 후 문화행사 및 시민축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바다 골재 공사를 추진 중이며, 추후 사건 행정절차 등을 거쳐 전주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으로 조성된다.

황원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이 문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더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가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갈 예정"이라며 "문화도시 전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덕진구 플랫폼노동자 센터 2호점

전주시 이동노동자 센터 2호점 개소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돼 덕진구에 조성

전주시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센터를 열었다.

시는 1일 완산구 서부신시가지에 이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900만 원을 지원받아 조성됐다.

추가 조성된 덕진구 이동노동자 센터도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완산구 센터와 교대로 '플랫폼 이동노동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플랫폼노동자 안전노동인식개선 캠페인 △직무교육 추진 등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업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전주지역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권익과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3기 모집

전주시는 오는 14일까지 시민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 전주시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설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3기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전주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활동가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선발 시 환경문제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SNS 활동에 적극적인 시민을 우대한다.

시는 올해 100명의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2차례 시민활동가 1기, 2기를 40여 명 선발했고, 이들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등 각종 환경보호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수 시민에게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가졌다. 이번 선발 예정인 시민활동가 3기 역시 1기, 2기 활동가들과 함께 각종 캠페인, SNS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해 '전주시 환경지킴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많은 분들이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을 지키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희망자는 전주시 청소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yyj2244@korea.kr)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폭염 위험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 취해야"

우범기 전주시장, 폭염 예방·대응 주문... 시, 살수차 가동·무더위쉼터 운영 등 총력전 돌입

폭우에 의한 피해 예방과 대응, 복구 작업에 행정력을 쏟았던 전주시가 최근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는 한낮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주요 도로마다 살수차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폭우에 이은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우범기 시장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철저한 폭염 대응을 반복해서 주문했다.

당장 시는 어느 때보다 무더운 7~8월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690여 곳을 운영한다. 무더위쉼터는 더위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로당(431곳)과 복지시설(45곳) 등을 중심으로 개방·운영되고 있다.

또 도심 속에서 한낮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58곳)과 관공서(40곳), 도서관(18곳) 등도 무더위쉼터로 지정, 개방하고 있다. 무더위쉼터에서는 오가는 시민들이 한낮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냉방기를 가동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시는 무더위가 야간까지 이어지는 열대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한 우범기 전주시장.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맞춤형 무더위쉼터' (20시~익일 7시)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안전확보에 다양한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상청의 폭염 예보에 맞춰 주요 도로의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살수차도 운영한다. 완산구(6대)와 덕진구(6대)로 나눠 도로에 시원한 물을 뿌리며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고 있다.

특히 시는 한낮 불볕더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청 예보에 따라 마을안내 방송과 재난 문자를 비롯해 SNS 및 전광판을 활용해 폭염 상황을 알리고 시민의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그 외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폭염 대응 물품 지원과 시민이 많이 찾는 관광지 및 관공서를 중심으로 양산대여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폭염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대응과 병행해 폭염 취약계층을 상대로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을 펼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열질환자 발생 등 그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 실국에 언급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하반기 활동 시작

전주시가 시민의 눈으로 시내버스 이용자의 각종 불편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시는 1일부터 11월까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의 하반기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모니터단은 시내버스 운행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활동한다.

하반기 시민모니터단은 17세 이상의 월 10회 이상 전주 시내버스 이용자 198명으로 꾸려졌다. 상반기 모집공고를 통해 활동해온 모니터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3개분야(운행행위, 친절행위, 차량상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환경 개선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무정차와 급출발, 난폭운전과 불친절, 시설물

훼손 등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를 시에 전달하고, 시는 이를 해당 버스회사에 시정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민모니터단의 평가와 더불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사연을 추천, 제보받아 향후 시내버스 친절·안전 기사 선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시민모니터단에게는 평가서 1건당 1시간씩, 월 최대 3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주어진다. 또 월 10회 이상 평가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매 월 2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시민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전주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시내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